

# ‘목회자 사모가 되어가기’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김보림\* 김미경\*\*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단독목회의 현장에서 사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겪은 어려움, 애환과 보람 그리고 딜레마의 이야기를 담은 내러티브 탐구이다. 이를 위해 중년기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사역의 의미와 사모의 정체성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면접은 단독목회 사역경험이 10년 이상 된 4명의 사모들이었으며,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은 Clandinin과 Connelly가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를 따랐다. 자료 분석은 현장 텍스트와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분석적 메모를 통해 사모들의 사역경험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이야기를 시간과 공간적 흐름, 인물, 여러 사건의 전후 등의 변화를 내러티브적으로 코딩하였고 주제를 전개해 나갔다.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그 의미를 구성하고자 참여자들의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이동시킨 결과, 4가지 측면이 도출되었다. 즉 신앙적인 배경, 결혼과 목회를 하게 된 배경, 사역과정에서 자녀양육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와 노후 계획을 중심으로 의미구성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중년기 목회자 사모들이 이야기된 삶의 관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다시 살아갈 이야기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중년기 여성, 목회자 사모, 사역경험, 내러티브 탐구, 이야기된 이야기

• 논문 투고일: 2020년 4월 5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5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14일

\* 서울한영대학교 석사

\*\* 서울한영대학교 재활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본 연구는 서울한영대학교 김보림의 석사학위논문(2020년 2월, 지도교수: 김미경)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한 논문임.

## I. 여는 글

중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왕성한 활동과 안정을 경험하는 절정의 시기 이면서 동시에 건강, 경제, 직장, 가족관련 생활 사건으로 변화를 겪으며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중년기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개 40세부터 65세로 보는 견해가 많다. 즉 생애주기에서 가장 긴 기간 이므로 다양한 생활사건, 즉 건강과 신체 변화, 자녀 교육 및 부모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고용의 불안정으로 실직이나 조기 퇴직 등 삶의 여러 영역과 역할에서 좌절과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중년기의 다양한 생활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원이 중요한데, 특히 목회자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가족의 탄력성이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사모의 돌봄과 지원이 남편 목회자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경진, 2011; 이은아, 2006). 그러나 사모들 역시 중년기를 경험하면서 생물학적인 갱년기,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족들의 관심과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랫동안 남편 목회자의 과부화된 사역에 동역하여 헌신을 한 사모들은 중년기에 이르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들로 인해 역할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다(이강은, 2006). 더욱이 사모의 교회 내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각 교회의 요구와 형편에 맞추어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목회 환경은 때로는 불균형과 부적합한 상황들이 전개되어 사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의 위험성은 증가할 수 있다. 먼저 목회자 사모는 역할의 다중성으로 고통과 부담이 가중된다. ‘사모’라는 역할에 대해 어떠한 정의와 규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목회자 사모는 다양한 일을 맡고 있다. 영적인 어머니, 목회자의 아내, 한 가정의 주부, 남편의 협력자, 성도의 조력자, 상담자, 봉사자, 반주자의 역할을 하며 때로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말씀을 전하는 부교역자의 역할

까지 마주하게 된다(성은휘, 황은영, 2019; 장미선, 2014). 그러므로 사실상 사모들은 자신들의 중년기 위기의 신체적, 심리적인 미묘한 변화 앞에 스스로를 챙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중년기 성인 남녀 모두는 기존의 삶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삶을 재구조화하여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하면, 성인 초기의 왕성한 활동을 재조정하여 신체적인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건강한 상태로 노년기에 진입할 수 있다. 목회자 사모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해 왔으며 지나온 삶을 재평가하며 노년기의 목회를 대비해야 하는 발달적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사역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모는 남편 목회자를 내조하는 아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동역하는 사역자이기도 하다. 특히 사모의 사역은 교회와 남편 목회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므로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서 적극적인 목회의 동역자로 다중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교회의 급성장과 더불어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면서 일꾼의 부족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목회자가 미처 돌볼 수 없는 성도들을 사모가 심방하고 전도하며 때로는 교사로 나아가 여전도사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다. 즉 사모의 역할은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 확산에 편승하여 아내로서 가정적인 내조와 은밀한 봉사만이 아닌 교회 운영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회자 사모 역할은 교회마다 천차만별이다. 남편 목회자의 내조자이면서 개인 비서로,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반주자, 성도들을 위한 식사준비와 설거지 등 다양한 업무는 사모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교회의 필요에 의한 일을 해내야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생애주기에서 중년기는 번복점으로 인생 최고의 절정에서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갱년기와 사역의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사역현장에서 중년기 목회자

부부들은 다른 발달적 단계보다 중추적인 위치에서 역할이 요구되어 위기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중년기의 다양한 생활사건 경험은 사회적 지지에 따라 심리적인 안녕감과 영적인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모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현실적으로 많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지지의 주요원인 목회자 남편도 사역의 과부화로 아내에게 지원 역할을 하기가 힘들고 늘 대면하는 성도들에게 사모가 사회적 지지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모들은 잠재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으며 과중한 사역을 받아들이며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모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동기를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모들의 생애 경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역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적 접근을 통해 이야기된 삶의 관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다시 살아갈 이야기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중년기 여성

인생은 모든 시기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최근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전, 풍요로운 생활양식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로 표방되면서 중년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년기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면서, 중년기는 성인기 발달과정에 있어 결정적 시기이며 내적, 외적 변화와 관련된 많은 당면 문제들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

다. 이제 중년기 연구에 대한 국내 동향은 중년기가 어느 한 학문 분야에서 국한되지 않고 심리학, 사회학, 가정학, 간호학, 의학과 같은 다학문 영역의 관심 주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왕석순, 서병순, 1995).

중년기는 한 개인으로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기숙, 2003; 김정진, 2011). 또한 중년기는 생애발달에서 중요한 전환기로 중년기 위기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중년기 위기'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Jacques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중년기 여성의 가장 큰 위기의 변화는 생리적 영역에서 신체적 기능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개인차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40세 정도부터 신체적 노화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체력 저하와 호르몬 변화에 따른 다양한 특이 현상을 겪게 된다. 중년기 여성들에게 중요한 신체적 변화인 폐경이 시작되면서 젊음과 출산 능력의 상실 등을 경험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윤정화, 2013; 이은아, 2006).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변화는 여성성의 상실과 노년기에 대한 두려움, 자녀성장과 독립에 따른 역할변화로 인해 고립과 위축, 우울감 등의 정서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김영애, 2012). 또한 부모나 친구, 주변인들의 죽음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게 하며, 지나 온 삶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통해 현재와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재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년기 여성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오정미, 조성희, 2016).

## 2) 목회자 사모

한 여성이 목회자 후보생과 결혼하거나 혹은 결혼한 여성의 남편이 목회를 하는 경우, 그녀의 역할은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 이상의 요구가

주어지게 된다. 또한 특별한 호칭이 주어지는데 ‘부인’ 혹은 ‘성도’ 보다 ‘사모’, ‘목회자의 아내’, ‘교역자 사모’ 등으로 불린다(배순희, 1995). 일반적으로 사모란 스승의 부인이거나 남으로서 자기보다 윗분 되는 사람의 부인을 높여서 부르는데 쓰이는 칭호이기도 하다(임의도, 2002). 목회자의 부인을 호칭할 때 사모라고 부르는 것은 목회자 아내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박관순, 1991). 실제로 교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사모의 역할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형편에 맞게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목회자 사모는 교회와 가정에서 완전함을 갖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특수한 입장에 있게 된다(조현미, 최은정, 조은주, 2018).

그러나 김나미(2016)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특정한 직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주어진 형편에서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에 고단한 삶을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모에 대한 역할기대는 실제로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사모의 역할을 규정짓는 교회 혹은 교인이 있는가하면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사동역하는 사모 역할을 기대하는 교회와 교인도 있다. 사모 역할에 대한 기대심리는 교회 내 사모로서 맡은 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적인 문제에서도 작용하는 이른바, 사모의 역할부담은 가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성은휘, 황은영, 2019). ‘사모’라는 위치는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모든 가정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요구 받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30-50대의 기혼 여성 직장인들은 미혼 여성보다 직장인과 주부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가영희, 2006). 특수한 사모의 사역은 기혼 여성 근로자의 다양한 역할에 더하여 일상이 자주 교우들에게 평가대상이 되는 심적 부담도 겪

고 있다(연영숙, 2013).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사모들은 사모와 직장여성이라는 양 갈래 길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모종의 강박관념으로 늘 노심초사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 과중한 업무로 소진을 호소하기도 한다. 사모들은 자신의 몸은 고단하지만 피로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교우들 앞에서 표정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른 바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한다. 대형교회 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물질적 고단함이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조현미, 최은정, 조은주, 2018).

목회현장에서 교인들은 사모들에게 모종의 헌신적이고 은밀하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모들은 육체적, 심적 부담감을 갖게 된다. 되도록이면 사모 개인의 감정표현을 자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경건 된 태도라는 목회 분위기에서 사모들은 정서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년기 목회자 사모는 실제로 신체적인 변화와 체력의 감퇴, 폐경과 때로는 가족부양의 역할과 책임감,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다(윤정화, 2013; 이평숙, 2003). 또한 부부관계보다 교회와 자식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온 목회자 사모일수록 고독감과 공허감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이강은, 2006; 이관직, 1999).

### 3) 선행연구

목회자 사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사모의 다중 역할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편이다(강순애, 2014; 오미희, 2012; 최유란, 2013). 비슷한 맥락으로 가정과 교인들의 요구와 기대로 인한 가중된 역할로 인해 사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이진영, 2011; 황미경, 2018)도 있다. 또한 이러한 사모들의

역할 갈등을 해소하여 안녕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및 변인들에 대한 연구(김보람, 김사라형선, 2019; 김정선, 2018; 성은휘, 황은영, 2019; 주희은, 박승민, 2018)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주로 사모들의 역할 갈등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연령대의 일반 여성들보다 목회자 사모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이 오히려 더 취약한 상태라는 손민정(2013)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헌신적인 내조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그 고충을 있는 대로 들어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와 예방을 위한 통찰할 수 있는 자원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모들의 사역경험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로 탐구함으로써 미래적인 건강한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1) 내러티브 연구방법

내러티브 탐구가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의 한 형태로서 인정받게 된 계기는 Connelly와 Clandinin이 1990년에 함께 쓴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라는 논문을 통해서이다.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는 달리 내러티브 탐구는 시간성(temporality), 사회적 상황(sociality), 장소(place)의 내러티브 탐구의 삼차원적 공간(three 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특성을 지닌 특정 방법론을 지칭한다(염지숙, 2006).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이야기들을 ‘현장 텍스트’라 부른다. 이들은 내러티브란 살아 있는 그리고 이야기된 이야기(told stories)를 분석하는 절차라고 제안한다.

Czarniawska(2004)도 내러티브란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행동 또는 일련의 사건/행동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공하는 음성 혹은 문자 텍스트로 이해된다고 봄으로써 내러티브를 질적 연구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내러티브는 인간의 경험과 행위들에 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의 흩어진 사건을 이해함으로써 미래 행위를 계획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또한 내러티브는 지나온 경험의 의미를 찾도록 함으로써 현재 삶에 내재된 자원을 활용하고 재구성하여 삶의 자각을 넘어서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돕는다. 이런 맥락에서 Neimeyer(2005)는 내러티브란 심리적 적응 수준을 넘어서도록 하여 미래 삶을 만족스럽게 이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방법론을 적용한 이유는 단독목회를 하는 목회자 사모의 개개인의 고유한 내면의 특성과 관계적 차원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역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러티브 접근법은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상호작용의 관계적 역동을 보여줌으로써 사모들의 주관적 경험의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또한 사모들의 목회실제 경험의 장에서 이들이 실천적인 삶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내러티브 접근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삶의 의미를 연구 참여자가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이 내포되어 있다. 즉 내러티브는 삶의 맥락에 따라 살아낸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사모들의 이야기는 개별적이며 주관적이라는 점과 단독 목회경험이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Clandinin과 Connelly(1998)가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으로 사모들의 경험 맥락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들의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삶으로 살고,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사는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사모들이 이해한 바를 실천적인 삶으로 경험하여 왔으므로 더욱 이해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구 질문은 “사모로서의 나의 경험의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로 설정하고 Clandinin(2015)의 내러티브 탐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 2) 연구 과정

### (1) 현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연구자는 단독 목회경력이 10년 이상 된 4명의 사모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굴곡진 목회 사역에 관한 애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으며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떻게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지에 대해 드라마틱한 삶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한 눈 팔지 않고 사역의 삶을 위해 달려왔음에 감사한 부분도 많지만 그동안 물어 둔 상처들을 조심스럽게 건드려보기에 이를 연구 퍼즐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사역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다.

### (2) 현장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연구 참여자들이 목회적 삶에 관하여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도록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야기 발자국을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며 질문과 공감을 하며 지지하였다. 연구자는 특히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 내재한 복합적인 이슈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누구의 이야기인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를 자문하면서 이들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필요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의 녹취된 이야기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재차 질문을 통해 누락된 이야기 공백을 메우고자 했으며 이러한 방법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만남을 요청하여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이들의 이야기 공간에 함께 머물렀다.

### (3)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현장 원자료와 그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녹취록을 미루지 않고 직접 전사하였다. 참여자의 이야기는 종종 뒤섞여 있기도 했다. 이야기 안에는 이야기 줄거리를 극적으로 바꾸게 한 사건이 회상되면서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이 주어지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야기를 구성할 때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장으로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그동안 참여자들과 함께 교류하며 지내 온 경험을 토대로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였고 회상내용과 중복된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에게 전사된 현장 텍스트에 관해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수정사항을 점검받고 검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 (4)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10여년 이상 사모로서의 경험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현장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하였다. 첫째, 참여자들의 이야기 내용 중에서 의미 단어를 다시 추출했다. 의미 단어 추출시 그 의미가 전체를 포괄하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둘째, 추출된 의미 단어가 참여자들의 삶의 맥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 텍스트를 다시 구성하였다. 셋째,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 침묵의 검토 및 분열과 모순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분석 전략들에 의해 이야기의 변형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Czarniawska, 2004), 이를 염두에 두면서 구성하였다. 또한 특정한 의제에 관해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야기도 분석에 포함하여 그들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여 경험에 대한 의미구성을 완료했다.

### (5)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중년기 여성으로 이제는 젊은 시기와는 달라져서 마

음껏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자신은 사모이니까 목회에 방해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참으며 살아왔다는 목소리들이 연구자의 뇌리를 떠나지 못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한 여성이기 이전에 양무리를 품어주고 섬기면서 살아 온 사모로서의 삶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현실을 넘어선 ‘소명을 향한 목적 지향적 발걸음’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어 이를 중심으로 연구 텍스트가 작성되었다.

#### (6) 3차원적 탐구공간으로 작성하기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즉 개인적·사회적 차원(상호작용),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차원(연속성), 장소 차원(상황) 등의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사회적 차원(특히 목회적 배경과 여정)과 시간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구성되고 있는지와 연구 참여자가 상호작용한 일련의 장소와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층적인 맥락으로 구성하여 3차원적 탐구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각각의 차원으로 분절하지 않고 맥락적으로 구성하였을 때 ‘변함없이 궁극목적에 향한 침묵의 걸음’으로 전체 의미가 도출되었다.

### 3. 연구결과

#### 1)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대상자를 ‘목적성 있게’ 선정하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 역시 특정 현상이나 탐구를 위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풍부하고 진솔하게 들려 줄

수 있고,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는 나이, 성별 등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하도록 강조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중년여성들로 단독 목회 경력이 10년 이상 되어 다양한 경험들을 풍부하게 전체적으로 조망해 줄 수 있는 4명의 목회자 사모들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목적과 과정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받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의사를 밝혔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연령	학력	가족사항	목회지역	단독목회경력	질병유무
A	62세	대중퇴	남편(64세) 아들, 며느리, 손자2	경기도 중소도시	13	무
B	52세	대학원	남편(59세)아들1, 딸1	경기도 중소도시	19	무
C	60세	대 학	남편(64세)아들1, 딸, 사위, 외손자	경기도면소재지	20	갑상선 고지혈
D	54세	전문대	남편(55세)아들2 딸, 사위	경기도중.소도시	30	무

## 2) 결과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사모로서 살아온 삶을 말하고, 살고, 다시 말하고, 다시 사는 과정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이들의 경험과 그 의미를 구성하고자 참여자들의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이동시킨 결과, 다음과 같이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신앙적인 배경, 결혼과 목회를 하게 된 배경, 사역과정에서 자녀양육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와 노후 계획이 현장텍스트에서 도출된 축이다.

## ‘목회자 사모가 되어가기’의 이야기들

한 개인은 사회가 부과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산다. 10여년 이상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남편의 아내는 일반 여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일반 중년기 여성과는 다른 역할지위(role status)를 갖고 이를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즉 중년기는 개인과 가족이라는 경계보다는 가족이 곧 나를 주관하며 중심을 차지하는데, 특히 목회자 아내는 목회사역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A 사모 이야기 〉

A 사모는 본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며 단독목회 13년차 되는 62세의 여성이다. 결혼 당시 ‘다른 조건 보지 말고 무조건 결혼하라’는 부모의 성화에 떠밀려 그 당시 총각 집사와 결혼하여 남편의 신학 공부를 도맡아 뒷바라지 하였고 섬기던 교회에서 남편이 오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1) 신앙적인 배경-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할머니와의 새벽기도 추억을 안고  
친정은 3대째 믿는 가정으로 할머니 새벽기도에 따라 다닌 기억과 농사를 지으면 가장 좋은 것을 교회에 가져가고 목사님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부흥회 강사는 도맡아 섬기고, 여름성경학교 교사 식사대접도 도맡아 하고 섬기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 2) 결혼과 목회를 하게 된 배경

(1) 결혼의 배경: 장로님 중매와 친정 부모님의 재촉으로 총각 집사와 결혼  
총각 집사와 시골교회 처녀 집사 때 남편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 중매

로 만났는데 친정엄마이모부 되시는 분이었어요. 어른의 권유라 거절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타났으니까 다른 조건 보지 말고 무조건 결혼 해라” 하시는 부모님의 강요에 맘에 안 들지만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 부터 새벽기도를 하였고 교회에서 성가대, 주일학교, 학생회교사, 지휘자, 맡겨주시는 대로 감당했어요. 그 당시 물질도 필요하고 공부도 하고 싶어 기도하고 충성하다 보니 전도해서 성전을 채우게 되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기도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2) 목회의 배경: 목회자와 결혼하게 될 줄이야

예수님을 만나고 부터 왜 살아야 하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나? 하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고 난 것이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 공부하다 중퇴하였는데 결혼은 안 하고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사모가 될 것이라는 상상도 안했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해서 하고 보니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지식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가 이끌려오게 되었어요. 목회의 길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의 응답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내 일을 하겠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 없이 살고 가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시지 않았어요. 원로목사님이 남편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하셔서 순종하였어요.

3) 사역과정에서 자녀양육과 성도와의 관계

- (1) 자녀 양육: 사역 중심의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아들  
신혼 때부터 아들 하나인데 돌아볼 경황없이 주의 일에 전념하느라

교회와 집이 생활의 전부였어요. 새벽기도에 빠질 수 없어 새벽밥을 못 해주니 원하는 학교 보다는 가까운 곳에 보냈고 교회를 벗어날 수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공부할 환경도 못 되었지만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고 어학연수로 미국에 갔다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자매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형제를 낳았고 잘 살고 있지요.

(2) 경제적인 문제 :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현실

친정에서 쌀, 과일, 야채, 식료품 등 의식주 문제를 해결 해 주셔서 남은 것으로 전도도 하였어요. 가장 힘든 것은 늘 잠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전도와 기도를 하다 보니 거의 외모 가꾸는 시간도 없었어요. 물건 살 때는 이월상품에 의존했고 알뜰하게 모아서 3년 만에 연립주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옷가게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남편이 음악 공부를 시작했고 신학공부를 하게 되었고, 문화센터를 8년간 운영하면서 뒷바라지를 하였어요. 꽃꽂이, 홈패션, 지점토, 유리공예, 스텐실 등 수강료와 재료비를 받아서 운영하느라 고생스러웠어요. 돈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미리 필요한 만큼 먼저 십일조를 하기도 했어요.

(3) 성도와의 관계: 전임 목회자의 스타일에 길들여진 성도들로 인해 연속적인 상처의 훈장이 새겨지기도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는데도 안일하게 예배와 기도생활을 게을리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며 가야하는 것 같아요. 직분이 계급도 아닌데 성직자 반열에 있다는 것으로 미묘한 간격과 거리가 생겼어요. 집사님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도 침묵하고, 은사를 받았지만 성도에게 무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도들은 은퇴하신 사모님의 언어, 스타일, 등등을 계속 요구하고,

모이면 홍보고, 사모님은 초 신자, 불신자들과 어울리니까 매일 전도밖에 모른다고, 흥 아닌 흥을 보는 것이었어요. 나중에는 현장에서 영혼을 교회까지 데려와서 정착시키고 말씀으로 양육 했는데 새로운 성도를 데려오면 협력하고 돕지는 않고 사택에 15명 정도 모아 성경공부를 시키면 장로님들이 태클을 걸고 그래서 직접 하시라고 하면 하지도 못하고... 부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전도해서 교회 데려와도 기존 성도들이 품지 못하고 오히려 사모를 흥분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들 수준에 맞추어 가도록 하셔서 지금은 강단꽃꽂이를 하고 꽃꽂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내가 할 테니 기다리라는 음성을 주시니 기다리고 있어요.

#### 4) 남편과의 관계와 노후의 삶 계획

(1) 남편 목사와의 관계 : 성도들이 우선 순위여서 때로는 서운하기도

회사 다니면서 야간 신학 십년을 했는데 성도가 먼저냐 사모가 먼저냐 라고 할 때 원로목사님은 성도를 살려야 하니까 사모보다 성도가 먼저라고 하셨는데..... 옛날 어르신들의 목회철학은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사모보다 성도가 우선이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고 기도했어요. 성도들을 300명 넘도록 훈련시켜서 세워 놓았는데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날 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목사님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었는데, 목사님 그릇에 내가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 노후 계획과 대비: 소신 있는 나만의 삶을 꾸려가고파

이제 나의 철학과 소신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은퇴 후 원로목사님으로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이 주어진다면 꽃과 함께 일과 취미로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옷 만들고 하며 살고 싶어요.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던지 형편이 되면 선교지로 가고 싶기도 하고.

## 〈 B 사모 이야기 〉

B 사모는 믿음의 지인 소개로 전도사를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목회의 길에 들어선 52세의 여성으로 1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다. 어려움 가운데 큰 교회를 짓고 목회에만 전념하여 왔는데 그동안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음을 돌아보게 되어 이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조금씩 하면서 지내고 싶어 한다.

### 1) 신앙적인 배경: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내 집처럼 여기며 성장

친정 부모님이 2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는 안수집사이셨고 어머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정에 3녀 중 둘째로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친구들을 전도했고, 중고등부 부회장과 성가대 지휘자로, 또 매주 토요일 마다 교회마당을 쓸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고등부 때 은혜 받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 하였지요.

### 2) 결혼과 목회를 하게 된 배경

#### (1) 결혼의 배경: 목사 후보생과 결혼하여 동시에 시작된 목회

교육전도사 때 유치부 부장님 소개로 신대원을 졸업하고 개척 준비하던 전도사를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 (2) 목회의 배경: 아픔 있는 남편의 권유로 목사 안수도 받게 됨

부목사가 성도들 열 가정을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남편이 나에게 안수 받고 부목사를 하라고 해서 받게 되었어요. 너는 성도를 데리고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하면서..... 남편이 안수 받고 난 뒤 칠 팔년 뒤에 교회 후보에 전도사로 있다가 부목사로 올려 졌어요. 지금은 성도수가 적어져 담임목사 혼자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가끔 출타하실 때 새벽에

배나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때 인도하게 되지요. 지금도 심방은 나를 많이 시키세요.

### 3) 사역과정에서 자녀양육과 성도와의 관계

(1) 자녀 양육: 정서적으로 고단한 부모의 상태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노심초사

늦은 결혼에 개척한다고 애를 안 낳고 있다가 35세에 첫 아이를 낳아  
고등학교 중학교 두 아이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라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보냈어요. 학  
교 끝나면 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저녁까지 먹고 오도록 했어요. 정서  
적으로 힘든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아이들도 힘들니까요. 자녀교육은  
의논할 것도 없었고 남편이 아이들에게도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하니까 아  
빠와만 있으면 힘들다고 해요.

(2) 경제적인 문제: 목회자 남편을 선택하면 고단한 삶이 따라오는 현실

개척 교회, 중간 사이즈, 큰 교회 목회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남편이 믿음으로 하는 모습보다 사람들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인간  
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잔소리 하게 되고 잔소리는 못 듣는 분이니 싸웠어요. 이제는  
저보고 할 일 없으니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데 교회 사역만 하였기 때문  
에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나가지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은  
지금까지도 생활비에 신경 쓰지 않고 사례비를 안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생활비까지도 교회 필요하다고 요구하셔서  
그것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예배당 짓고 이자를 내느라 늘  
생활비가 모자라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는데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왔는데 조금 편해지면 “내 목회니까 너는 가라”하고 사례비 받으  
면 빌려 달라며 가져가는 남편을 보면 내 남편은 하나님이지 하면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3) 성도들과의 관계: 부도로 인한 타격으로 성도들은 떠나감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가 함께 공격을 해 왔는데 목사님이 사모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성도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도 난 후 예배당을 옮길 때 오십 명 가량 따라 나왔는데 한 번 더 교회를 옮기게 되자 삼십 오명 정도 왔어요.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인터넷에도 뜨고 그러자 성도들이 나가고 어느 성도는 전화해서 왜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고 힘들었지요. 성도들을 위해 멀리 못가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4) 남편과의 관계와 노후 계획

(1) 남편과의 관계: 칭찬과 격려, 위로가 인색한 남편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인데 집에서도, 교회와도 담임목사님이시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사 할 때도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친구 만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지방회나 연회에도 안 나가더니,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둘째 임신했을 때 밤에 기도하러 나가기에 몸이 아프니까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좀 해주고 가시라고 했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감기로 열이 펄펄 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말이죠. 이혼하면 남편목회에 방해가 될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감히 생각도 못하고 살았지요.

(2) 노후 계획: 사명 감당하며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

남편은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목사를 얹혀 놓고 자신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편히 살 생각도 없고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은퇴 후 노년에 누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요.

### 〈 C 사모의 이야기 〉

C사모는 어릴 때부터 옆집에 살았던 남편과 성장이후에도 같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가난한 신학생으로 학업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남편의 학비와 자녀양육을 도맡아 억척스럽게 삶을 꾸려온 60세 여성으로 현재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원하는 목회자의 사모상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써왔지만 언젠가 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들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주님과 개인의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 예전에 맞보지 못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진솔하게 전하고 있다.

#### 1) 신앙적인 배경: 디모데처럼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 성장

할머니는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어떤 교훈을 들려주신 것은 아닌데 찬송을 부르라고 시키셨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안에 있는 나에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등을 불렀지요. 또 어머니는 새벽마다 우리 형제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특별한 음식을 하면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제 손에 들려주셔서 먼지가 풀풀 나는 신작로 길을 뛰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고등부 때 수학시험 전날 교회 갔다 오다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는데 다음날 교무실에 불려가 종아리를 맞았지요. 중, 고등부와 청년부에서 임원을 맡고 연합회 활동도 했지요. 처녀집사 임명도 받고 새벽기도와 봉사를 많이 했지요.

#### 2) 결혼과 목회를 하게 된 배경: 어릴 적부터 함께 성장하여 미처 사모가 될 준비 없이 결혼하여 가난한 신학생(남편) 뒷바라지를 도맡아 함

우리는 옆집에서 태어나 한 교회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때 너는 무엇이 될래? 하면 나는 사모가 될 거야~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사모의

꿈이 있었어요. 청년부 때 꽃꽂이를 맡았는데 꽃값이 나오면 가난한 신학생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어요. 그 전도사와 결혼 후 7년 만에 끝날 공부를 20년 동안 하는 바람에 일하라 아이 키우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하라, 남편이 목사안수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어도 후회는 없어요. 남편이 신학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자퇴하고 포기하고 할 때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100일 금식을 하였어요. 28세부터 전도사 하다가 사십대 후반에 목사 안수 받고, 고향집 거실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여 지금의 예배당이 되었어요.

### 3) 사역과정에서 자녀양육과 성도와의 관계

(1) 자녀 양육 : 피아노 학원 운영으로 인해 자녀 양육은 남편과 시모에게 위탁 출산하는 날까지 일(피아노 학원 운영)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서 일하는 줄 알고 할머니와 아빠 손에 컸어요. 두 아이는 어려서부터 말썽 한 번 안 일으키고 잘 자라 주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딸은 대학원에서 기독교윤리학을 전공해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는데 결혼하여 아들도 낳았어요.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하여 저희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어요.

(2) 경제적인 문제: 톡 없이 부족한 남편의 사례비로 무리한 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

지금까지 월급봉투를 받은 것이 몇 번에 불과하고 제가 학원하면서 목사님이 신경 쓰지 않도록 물질로 사역을 도왔는데 학비 대고, 농사 짓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한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져 두 번이나 쓰러졌어요. 두 번째는 황달이 와서 이제는 학원을 그만 두라 하시나 보다 하고 접었는데 항상 돈에 쪼들리는 거예요. 아이들 학비 때문에 빚을 져 돈에 애착이 생기면서 아끼고 안 쓰고 그랬는데도 사례비는 톡없

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선후배와 친구,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후원을 받게 해 주셨고 제게 주신 재능을 조금씩 발휘하면서 수입이 있어 감사하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다섯 군데 선교도 하게 되었어요.

(3) 성도들과의 관계: 개성이 강한 성도들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

성도들 중 몇몇 성격이 특이한 분들로 인해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그때 더 품어주고 인내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견디어 낸 제 자신이 대견스러워요. 전도와 봉사에 앞장서는 사모를 자랑스러워 할 때 감사하지요. 성도에게 무엇을 준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들을 지지해 주고 위로해 줄 때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4) 하나님과의 관계: 은사를 받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심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계시의 영을 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과 통역을 동시에 하게 하셔서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저의 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진퇴양난에 빠지고 사면초가에 있는 문제들을 기도해 주면 그들의 문제들이 술술 풀리고 치유의 은혜를 입으며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성경을 1년에 2독 하면서 매일 묵상일기를 쓰고 하루하루 말씀이 점점 꿀 송이 같구나 하고 깨달아 지니 감사할 따름 이에요. 제 마음을 시로 표현하게 하셔서 시인으로 데뷔도 하고 시집도 출간하게 하셨어요.

4) 남편과의 관계와 노후 계획

(1) 남편과의 관계: 앞치마 사역을 도맡아 했건만 종종 인정과 격려에 인색한 남편이 서운하기도 함

직장생활 하는 엄마들 자녀들을 데려다 한글을 가르치고 밥 해 먹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식사 대접을 하며 앞치마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 방황하는 문제 청소년들이 많아 부모 역할을 10여 년간 하였는데, 엄마

없는 아이들 두 명은 아침을 먹여서 학교 보내고 다녀오면 밥 해 먹여 집으로 보내고 했는데 결혼도 하고 신학대에 입학한 아이도 있어요. 봉사하리라 마음먹고 다양한 공부를 하여 이야기 할머니로 유치원과 요양원의 어르신들도 만나고 있어요. 호스피스사역과 목사님과 심방 사역을 하고 중보기도 사역도 하지요. 남편의 사모상은 계명인양 이래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여 타고난 기질과 성격 등을 다 갈아엎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반주자로 지휘자로 교사로 때론 밥하는 일, 주에 한번 반찬 봉사와 전도로 바쁘는데 교양 있고 조신하며 깔끔하고 예의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좋았고, 사모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지 사모될 준비가 없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나 묵상등도 성경공부도 없었고 그저 옛날 어른들처럼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사모의 성격 때문에 쓰신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빨래도 해주고 살림을 해 주시는데……. 내가 앞질러 가는 부분이 있어요.

(2) 노후 계획 : 예전보다는 물질의 염려에서 벗어남

요즘 청소 아르바이트 수입의 반은 연금에 넣는데 만 62세에 받을 땀크지 않은 금액이라 남편 연금과 합해도 기본생활하기도 어려울 것 같지만, 약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 〈D 사모의 이야기〉

D 사모는 목사님들의 험한 모습을 많이 보았기에 사모는 절대 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주변의 끊임없는 권유와 딱히 결혼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전도사와 결혼을 하여 30년간 목회를 동역해 온 54세의 여성이다. 오랜 기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많은 것 같았다.

1) 신앙적인 배경: 오빠로 인해 가족 모두 믿게 되어 모태신앙이 됨

엄마가 오빠를 낳았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을 때 오촌 당숙이 오셔서 살게 해 주셨고 할아버지에게 며느리를 교회 다니게 하라고 하셨대요. 산을 넘어 가야만 하는 교회를 당숙모 딸이 업고 다니면서 4살 때부터 성탄 이브행사에 찬양과 율동을 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무릎 꿇고 앉아 예배를 드리며 고등학교 때 까지 다녔지요. 학교를 오갈 때는 교회에 들러 걸레질 하고 풍금을 치고 집에 돌아오곤 하였는데 중고등부 부회장, 회장을 맡았고, 중1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는데 성탄절 때 늦게까지 아이들 가르치고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구. 여름방학 동안 엄마를 못 도와주니 머리채를 잡히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2) 결혼과 목회를 하게 된 배경 : 사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1) 같은 교회 전도사와 교사로 만남: 어린이집 교사로 취직하여 남편과의 자연스런 만남

청년부에서 하이킹을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실습전도사였던 남편이 같이 가게 되었어요. 장로님이 자전거를 탈 줄 모르니 뒤에 타라고 하셔서 생각 없이 탔는데 이 전도사 뒤에 타게 되었지요. 우리가 결혼을 발표하고 나자 장로님이 “어쩐지 전도사님 자전거 뒤에 타더라. 하시더라고요.” (웃으며)

(2) 주위의 적극적인 중매로 전도사와 결혼: 목사 사모에 대한 기피증이 있었으나 결혼조건에 맞는 형제를 만나지 못함

목사님들의 험한 모습을 많이 보아서 사모는 안 될 것이라고 마음 먹었는데, 고등학교 때 동네에 차가 다니지 않아 목사님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에서 일을 보고 오시다 성도를 만나면 뒤에 태우고 마을로 들어오시곤 하셨지요. 그 일로 안 좋은 소문이 나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시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시집 갈 생각이 없느냐고 하셔서 나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고...그 후 사모님이 전도사님과 결혼할 생각 없느냐고, 결혼하면 딱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셔서 아니? 연거푸 두 분이 짜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후 담임 목사님이 “너 사모 안 할래?” 하셔서 “안 해요 목사님 보필 잘 하는 장로랑 할 거예요” “그래? 네가 하면 딱 좋겠는데” 너 기도해 봐라~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출근하면 성전에 가서 사모는 정말 싫고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구.

### 3) 사역과정에서 자녀양육과 성도와의 관계

(1) 자녀양육: 태교부터 철저한 신앙교육과 인생계획에 의한 자녀교육에 애쓰 태교로 성경 통독과 찬송가를 불렀고, 수유 중에 잠언서를 장과 날자에 맞춰서 낭독하였고, 재울 때는 주기도문 송과 요한복음 3장16절을 불러주었어요. 유아기에는 도서관 책을 대여 해 읽고, 갖고 싶은 장난감은 용돈을 스스로 모아서 구입하도록 하였고, 취학 전 벽에 주기도문을 써 놓고, 인생계획을 20세까지 세우기도 하고. 반주 하라고 피아노학원을 보냈고, 체험학습여행을 다녔지요. 용돈기입장을 쓰고 용돈 마련을 위해 성경읽기와 독후감 쓰기를 하며 스스로 십의 3조를 하도록 가르치면서, 큰 꿈을 갖게 하려고 해외 전도여행을 위해 용돈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 입금하도록 하고, 3년간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먹고 싶고, 친구들이 먹는 과자가 먹고 싶어도 여권을 바라보며 참고 견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를 미리 답사하고, 중학교 때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해서 견학하였고. 남편은 바쁜 와중에 대화하거나 씨름, 장난치기, 스킨십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요. 훈육은 역할 분담을 하였고, 가족여행과 산행이나 스키를 하며 이야기꺼리를 만들면서. 현재 두 아들은 회사원으로, 딸은 결혼 후 미국에서 사위와 유학 생활을 하고 있지요.

(2) 경제적인 문제: 결혼 초 무일푼으로 시작해 양가에서 조달받으며 생활함  
 신혼여행 후 남은 30만원을 1년 치 교회 월세로 선납하고 무일푼이었  
 어요. 주. 부식은 바닷가에 있는 해초나 굴을 채취하여 해결하기도 하였  
 는데 교회와 사택을 건축하구. 두 번째는 친정과 시댁 가까운 곳이라 주.  
 부식은 풍성히 공급되어 다른 교회들에 나누었어요. 사택이 없어 교회  
 한 칸에서 생활하다 초가집 문간방에서 다섯 식구가 생활하던 중 지역주  
 민을 전도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개원 하였는데 사택, 생활비, 지역주민  
 들과의 소통이 해결되면서. 교회 2층과 지하를 매입하고 섬 교회에 반주  
 기도 보내고 선교회를 섬길 수도 있게 되었어요. 현재는 교회를 이전하  
 려고 건물 매입을 하였는데 전 재산을 드리고 교회당 안에서 생활하는  
 데, 온수가 나오지 않고 보일러도 없어 난방도 안 되는 생활을 노숙자들  
 생각하며 하고 있구. 그 후 장애인에 대한 공부를 하였는데 케어를 부탁  
 받아 작은 수입이지만 사택을 구입하고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어요.

(3) 성도와의 관계: 사모는 일꾼이라는 고정된 취급과 성도들을 통한 연단  
 은 지속됨

신학교 졸업 후 연고가 없는 첫 개척지로 갔는데 사모는 일꾼정도로  
 취급하고, 결혼한 남자만 어른으로 대우하는 곳이더라구요. 그런데 남편  
 이 귀하게 여겨서인지 마을 사람들도 의논할 일이나 자녀와 남편 문제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 오고 신뢰관계가 돈독하여 떠나 온 후에도 다시 와  
 달라는 요청이 오더라구요. 두 번째에서는 성도들이 여러 문제를 저에게  
 일차적으로 상담하고, 큰 문제일 때 목사님께 이차로 기도요청을 하는  
 편이고. 떠나오기 전 기도회를 하고, 한 분은 우시면서 식사준비가 힘들  
 어 그러냐며 빵이나 라면 끓여 먹겠다고 하셔서... 현재교회에서는 여 성  
 도가 내 앞에서 목사님과 스킨십을 하려고 접근 했는데, 사모가 질투한  
 다고 떠들고 다니구. 또 자녀들 돌보는 일보다 교회 일에 집중하라고 강  
 요받기도 하구.

#### 4) 남편과의 관계와 노후계획

(1) 남편과의 관계: 바뀌는 사역지로 인해 가중된 아내의 역할과 목회 조력자의 역할

학교 가까운 곳에 개척하여 중고등부 아이들 밥과 간식을 해주고 돌보는 사역을 하였어요. 조도는 면 단위라 리 단위 섬에 사는 아이들이 자취를 하였는데, 방과 후에 오면 돌봐 주다가 주일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성인은 한 명도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는 마을 안에 어린이집을 세워서 학교가기가 불편한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저학년은 하교 때도 데려오고 하여 평판이 좋았지요

(2) 노후 계획: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막막하기도 함

전혀 대비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뿐이지요. 그저...(말을 잊지 못한다)

#### 4. 결론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목회자 사모가 되어가기’에 대한 생애사적인 접근으로 연구 참여자의 개인 내·외적인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사모 됨’의 의미와 이에 미치는 영향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Clandinin(2015)은 내러티브 탐구란 한 개인이 세계와 자신의 관계적 삶을 탐구하여 자기 존재의 의미를 형성하는 한 가지 방법인 동시에 삶의 현상(또는 경험) 그 자체라고 말한다. 참여자의 관점에서 내러티브 탐구는 그들의 삶을 단지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기술하는 차원을 넘어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된다. 연구자와 참여자의 경험세계에 기반을 둔 존재적 성장을 지향하는 내러티브 탐구는 해석학적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경험의 맥락성과 고유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사모들은 처음부터 배우자로서 목회자를 원하기 보

다는 예비 목회자를 만나서 다면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각양각색의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영적인 자원으로 이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현재 진행형이었으며 미래의 이야기가 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러티브를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하면서 한 여인으로서의 소박한 행복보다는 목회를 일구려고 하는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연구자에게 깊은 공명으로 다가왔다.

###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단독목회의 현장에서 사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겪은 어려움, 애환과 보람 그리고 딜레마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남편 목회자를 조력하면서 단독 목회를 10여년 이상 해 온 네 명의 중년기 사모들을 대상으로 '사모 되어가기'의 존재 지향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Clandinin과 Connelly(2015)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에 따라 전개하였다. 절차는 현장 들어가기, 현장 텍스트 쓰기, 연구 텍스트 쓰기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목회자 사모들은 목회 초기의 척박한 현장경험과 앞치마 사역은 물론이고 다양한 역할들을 힘에 겨울 정도로 감당해 왔다. 연구 참여자들의 현장 텍스트는 오랫동안 간직된 이야기들이 많았으며 같은 교단의 사모들과도 서로 공유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사모가 되기 위한 준비나 계획 없이 목회의 길에 입문하기도 했지만 모태 신앙이 근간이 되어 하나님이 사모로 불러 주시고 세워 주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지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데 보람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하고 녹록하지 않은 환경에 휘둘러 배가 난파하듯이 역경의 그림자가 오랫동안 비치기도 했지만 현실에 적응하고자 자신만의 은사를 계발하여 효과적인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연구자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들은 이미 미래의 건설적인 생의 이야기들을 담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는 절대자의 배려와 손길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현장 텍스트에는 성장과 반성, 실의와 감사, 다짐에 대한 이야기들로 다시 살아내고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목회자 사모로서의 삶을 지향하며 부화(hatching)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주어진 현실 세계 속에서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고 재체험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성도들을 포함한 관계망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김미경, 2010). 본 연구는 중년기 목회자 사모에게 있어서 사역의 의미와 사모의 정체성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이야기된 삶의 관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다시 살아갈 이야기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순애 (2014). 목회자 사모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호남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기숙 (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진 (2011).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미 (2016).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6(2), 673-685.
- 김나미 (2015).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지, 15(2), 252-261.
- 김남준 (1998).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두란노.
- 김미경 (2010). 중년기 부부위기와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15, 137-159.
- 김보람, 김사라형선 (2019).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기독교상담학회지, 30(3), 67-90.
- 김정선 (2018). 트라우마와 릴레이셔널 홈: 위기에 처한 목회자와 사모 돌봄과 상담을 위한 개념적 틀. 한국실천신학회지, 58, 389-416.
- 김중호 (2017). 목회자 사모의 모성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대학교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희 (2015). 내러티브 정체성을 통해 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관순 (1991). 현대목회를 위한 사모학. 서울: 광림.
- 성은휘, 황은영 (2019). 음악활동이 목회자 사모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5(3), 181-203.
- 손민정 (2013).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순옥 (2013). 중년여성우울증에 대한 여성주의 목회상담: 이야기치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지숙 (2006). Narrative inquiry: A trend, issues, and possibilities. 교육인류학연구, 9(1), 99-122.
- 오미희 (2012). 목회자 사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

- 는 영향 연구. 백석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미, 조성희 (2016). 목회자 아내의 부부 적응에 관한 심리적 현상연구: 부부 적응도가 높은 중년기 목회자 아내를 중심으로. *기독교상담심리학회지*, 27(1), 197-230.
- 왕석순, 서병순 (1995). 중년기 적응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한국노년학*, 15(1), 54-73.
- 윤정화 (2013). 폐경기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 연구.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강은 (2006). 목회자 사모의 역할갈등에서 오는 우울증 치료방안 연구. 호서대학교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관직 (1999). 사모의 우울증,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123(9), 76-87.
- 이은아 (2006).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1), 107-126.
- 이진영 (2011).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독교 상담방안: 심리 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평숙 (2003). 중년여성의 분노, 지각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현미, 최은정, 조은주 (2018).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경험. *신앙과 학문*, 23(1), 159-195.
- 주희은, 박승민 (2018). 목회자 사모가 인식하는 결혼 만족도와 역할 스트레스와의 관계: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기독교상담학회지*, 29(3), 291-328.
- 최유란 (2013). 찬송가와 CCM 중심 노래심리치료가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교회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미경 (2018). 부교역자 사모의 정체성을 위한 상담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9, 113-132.
- Clandinin, D. J. (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역,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 2013 출판).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8). Stories to live by: Narrative understandings of school reform. *Curriculum Inquiry*, 28(2), 149-161.

- Creswell, J. W. (2018).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원전 2013 출판).
- Czarniawska, B. (2004). *Narrative in social scienc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Neimeyer, R. A. (2005). Grief, loss, and the quest for meaning: Narrative contributions to bereavement care. *Bereavement Care*, 24(2), 27-30.

【 Abstract 】

## Narrative Inquiry on ‘How to Become Pastor’s Wife’

**Kim, Bo Lim & Kim, Mi Kyung**

Seoul Hanyoung University

The study is the narrative inquiry on the stories of joy and sorrow, rewards and dilemmas of pastor’s wife in their roles at the site of sole ministry.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searches the meaning of ministry, and the process of creating and changes in pastor’s wife in middle age. Interviewees were 4 pastors’ wives with period of ministry not less than a decade at sole ministry, and interviews were performed since April to November 2019. The study method followed the process of narrative inquiry proposed by Clandinin and Connelly. Stories of pastors’ wives were narratively coded in the flow of time and space, and in the change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context of various events etc., focusing on the ministerial experiences, and the theme was unfolded, analyzing available materials by repeatedly reviewing site texts and listening to interview recordings. As the result of transferring the texts of participants to the Study to study text in order to compose the meaning with consideration on their context of life, 4 aspects were derived.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tories of participants, the meanings were composed focused on spiritual background, the background for marriage and ministry, child fostering in the course of ministry and relationship with disciples, and relationship with husband and retirement planning. the study is meaningful in triggering pastors’ wives in their middle ages to establish their identity on “Who I am” from the living viewpoints they shared, and to encourage them to pursue the story of living again.

**Key words:** middle-aged woman, pastor’s wife, ministerial experiences, narrative inquiry, told stories.